

한 달 살이 여행이 아닌 삶을 배우다 - 사이판 한 달 살기 -



김소라¹⁾

작가

짧은 여행이 아닌 한 달 간 살아보는 여행.
여전히 '제주 한 달 살이' 열풍은 식을 줄 모른다.
가수 이효리처럼 아예 제주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는 없지만
한 달 간의 여행으로 다른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다.

1) '맛있는 독서토론 레시피', '엄마의 그림책', '그림책은 재밌다' 등 세 권의 책을 썼고, 글쓰기와 토론 강의를 하고 있다

짧은 여행이 아닌 한 달 간 살아보는 여행. 여전히 '제주 한 달 살이' 열풍은 식을 줄 모른다. 가수 이효리처럼 아예 제주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는 없지만 한 달 간의 여행으로 다른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유행따라 번지는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계획했다. 매일 매일 바다를 보는 삶.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다가 동네 카페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는 삶.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바다 먹거리로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는 제주식 키포크 라이프. 그런데 방이 없단다. 그 많은 '한 달 살이 달방'이 연초에 예약이 끝났을 정도다. 방학 시즌 월세는 무려 150만원 가까이 된다.

그렇다면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어떨까? 사실상 '한 달 살이'는 세계 곳곳 어디서나 가능한 일 아닌가. 한 달 살아보고 싶은 지역은 아마 느낌과 여유가 있고 정겨운 곳이면 좋겠다. 너무 뻥뻥한 고층빌딩의 대도시는 싫다. 비행시간이 길어서 지치는 곳도 싫다. 겨울에 가려하니 이왕이면 따뜻하면 좋겠다. 영어권 국가이면서 제주도의 10분의 1정도로 작은 섬. 나의 머릿속에 떠오른 곳은 바로 사이판이었다.

작년에도 한 번 가보았던 사이판은 매일 매일 똑같은 바다를 보아도 지루하지 않은 곳이었다. 해변에서 하루종일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청정한 아름다움에 눈이 호강하는 곳. 황사 낀 답답한 공기를 완전히 잊을 수 있는 눈부신 곳이다. 사이판 한 달 살이! 갑자기 마음은 설레고 머릿속은 분주해진다. 그냥 무조건 go!



“우리 동네 크기만한 작은 크기의 섬인데 뭐 볼 게 있냐고?”

하루면 다 돌아볼만큼

코딱지만한 섬이라면서 한 달이나 살겠다고?”

하지만 사이판을 몰라서 하는 소리. 한국의 80년대 조금은 낡고 허름한 분위기도 좋다. 건물은 오래되었을지 모르지만 말끔한 느낌이다. 하늘과 바다는 푸르게 빛이 나고 매일 반짝임이 남다르다. 마이크로비치, 파우파우비치, 슈가덕비치, 래더비치, 오비안비치, 탱크비치, 마린비치, 라우라우비치, 마나가하 섬 등 매일 비치투어만 해도 한 달이 모자랄 판이다. 특히 안전한 지역이라는 점이 매력적. 교통사고나 범죄율이 높지 않고 치안이 좋다.

사실 사이판은 전쟁의 아픔과 상처가 얼룩진 곳이다. 사이판의 북쪽 마피산 부근에는 '한국인 위령 평화탑'이 세워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강제 징용, 징병, 위안부로 끌려온 한국인들이 수 천 명이었다. 곳곳에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다. 1944년 6월 15일 미군의 사이판 상륙 이후 북쪽으로 쫓기던 일본군 사령부가 최후까지 저항하던 진지에는 미군의 폭격으로 생긴 커다란 구멍, 탱크, 포 등의 각종 무기들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사이판은 과거나 지금이나 자연이 한결같다. 파괴와 변화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사랑한다. 대한민국 같으면 집 앞의 도로가 개발되고 빌딩이 들어선다면 땅값 올라 좋아한다. 하지만 이곳은 시끄럽게 개발되어 무언가 들어서는 것을 싫어한다. 주말이면 한가롭게 가족들과 바닷가에서 놀고, 바비큐를 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상을 보낸다. 급할 것 없고 욕심 낼 것 없다. 원주민인 차모르족은 모계사회의 전통을 이어 나가며 온화하고 느긋하다.

한 달 살기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게 관건이었다. 사이판으로 2년 전부터 취향하기 시작한 저가 항공 때문에 자유여행객이 넘쳐나기 들어왔지만 방이 없단다. 연말이라 호텔도 거의 만실이다. 한 달을 생활하기 때문에 리조트 같은

근사한 숙박업소는 사치다. 다소 불편해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먹고, 자고, 놀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게 중요했다. 지인의 도움으로 중심지인 가라판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골드타운이라는 게스트하우스를 얻었다.

침대와 옷장 하나씩, 식탁과 의자 네 개가 전부인 방이다. 원룸 안에는 화장실도 있고, 작은 싱크대와 2단짜리 냉장고도 있었다. 냄비와 프라이팬 하나, 버너와 식기류 몇 가지가 전부다. 한 달간은 여행이 아니라 진짜 삶이 있는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다.

2층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문을 열고 나가면 커다란 개가 한 마리 있다. 낮이면 그 개는 늘어지게 낮잠을 잔다. 산책삼아 5분 걸어 나가면 에메랄드빛의 이국적인 바다. 밤이 되면 온 세상이 어둠에 묻히는 것도 좋다. 하늘의 별은 쏟아질 듯 반짝인다. 한가로이 많은 시간. 내 집에 비해 살림살이 없고 부족하지만 뭔가 좋았다. 한 달쯤 게스트하우스에서 살면서 간소한 생활의 매력을 느꼈다.

한 달 간 나의 집이 되었던 '골드타운' 게스트하우스의 박준수 사장과의 만남도 잊지 못한다. 새벽 4시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부지런함이 몸에 배인 분이다. 직원들과 똑같이 일을 한다. 그는 83년 사이판에 와서 식당 일부터 시작했고, 이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토목, 건축 노동을 하러 간 적도 있다. 이곳에서 만난 한국 여자와 결혼하여 작은 구멍가게부터 시작하여 나중에는 큰 마트 5개를 운영하기도 했다. 80명이 넘는 직원을 관리하는 어려움 때문에 마트를 모

두 정리하고, 숙박업으로 바꾸셨다. 주로 단체손님을 위한 장기숙소를 임대하는 곳이다.



오며 가며 숙소에서 마주치는 박준수 사장은 친절히 항상 말을 건네며 지내기에 불편함 없냐 한다. 모링가 잎을 말려서 직접 차로 만드신 것을 주셨다. 화단에는 가꾸시고 온갖 꽃나무와 화초, 알로에, 약용 식물, 채소 등을 심어 놓으셨다. 이것 관리하는 것도 정말 바쁘다 한다. 식물 하나 심어서 키우고, 싹이 날 때의 즐거움은 통장 잔고 쌓여가는 즐거움보다 크다고 말한다. 노동의 즐거움을 잃지 않는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였다. 전 세계 안 가본 곳 없이 여행했다지만 아직도 사이판 바다만큼 아름다운 곳 없다며 이곳을 진정 사랑한다. 하루 시간 내어 사이판 구석구석 드라이브 해주셨고, 떠나기 전날 밤에는 바비큐 파티

도 직접 해주신 인정 많은 분이였다.

한 달. 인생에서의 한 달이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달 꼬박 일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책도 서너 권 읽을 수 있다. 전투육아 중인 엄마들이라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신없는 시간. 대부분 현대인들은 무기력하게 매일 반복적인 일상에 한 달을 특별하고 의미있게 사는 건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

살아보니 살 만하다. 아니 살고 싶어진다. 자연 속에서 사람은 순해지고 소박해 지나보다. “사이판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묻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나의 소박한 대답에 놀라곤 한다. “게스트하우스의 화장실에서 매일 아침마다 해 뜨는 거 보는 거요. 열대나무의 숲이 펼쳐져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게 얼마나 멋진데요!”

기껏 화장실 쪽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이렇게 멋져도 되는 건가 생각했다. 비치로드에서 매일 해 지는 것만 보아도 황홀하다. 큰 욕심이나 대박의 꿈같은 게 사라진다. 세속적 욕망이나 계획같은 것 던져 버려도 좋다. 같이 간 아들과 조카에게도 물었다. 결론은 나쁜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좋다는 이야기.



“자연이 깨끗해서 어딜 가나 예뻐요”

“스노쿨링 하러 바다 가면 노랑, 초록, 파란 물고기 정말 잘 보여요”

“차도 안 막혀서 어딜 갈 때 힘들지 않고요”

“소고기가 싸고 다 맛있어요”

“도마뱀을 많이 봤는데 깨끗한 환경이라는 뜻이래요”

“밤에는 별이 정말 많아서 매일 밤 별 보는 게 좋아요”

“바다색깔이 매일 매일 달라져서 신기해요”

아이들은 이곳에서 현지 학교를 다녔다. 매일 일기를 쓰면서 기록했다. 아마 아이들에게도 역시 사이판 한 달 살기는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학교 끝나고 오는 길에 무작정 물에 뛰어들어 수영한 일, 바닷가에서 불 피우고 라면을 끓여 먹은 일. 목적지가 없다는 것. 이정표대로 가다가 보이는 것에 끌려서 어딘가로 향하였던 하루하루. 그래서 매일 만나는 우연

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계획대로 꼭 틀에 맞추어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터득하는 것. 이게 나의 한 달 살기의 목적이라면 목적이었다.

사이판 한 달 살기를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 blog.naver.com/sora7712 사이판 한 달 살기 게시판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한달 살기 Tip

- 장기 숙박은 최소한 3개월 전에 예약이 이미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일찍 예약할수록 저렴하고 괜찮은 집을 얻을 수 있다.
- 여행사의 관광상품은 비추. 현지에서 가격을 비교해보고 충분히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투어 상품들이 많다. (마사지, 스킨스쿠버, 산악오토바이, 패러글라이딩, 선셋크루즈, 호핑투어 등)
- 사이판은 비자없이 3개월 체류 가능. 한국 면허증으로 렌트카를 빌릴 수가 있다. 35마일 이하(시속 60km이하) 제한속도이며, 신호 없는 곳에서는 유턴이나 좌·우회전이 가능하다. 운전 미숙자여도 천천히 운전만 하면 문제없다.
- 사이판에서 현지 학교를 등록할 수 있다. 유학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 학교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1일씩 계산하여 학교를 다닐 수 있다.
- 웬만한 한국 물건은 마켓에서 비슷한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짐을 무리하게 꾸리지 않는 게 좋다.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비싼 편. 석회질 물 때문에 식수 가격이 많이 든다.
- 한 달 살기 경비는 먹는 것과 생활비 등의 지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2인 기준(어른 1, 초등1)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비용이 들었다. (\$1=1,100원 환율)
 - ▶ 게스트하우스 \$700~\$1000 (성수기, 비수기 요금 차이 있음)
 - ▶ 차량 렌트 \$700~\$1000
 - ▶ 학교 20일 등록비 \$600~\$1000
 - ▶ 투어 상품 (ATV, 마나가하섬, 선셋크루즈, 농장체험, 바비큐, 월드리조트, 패러세일링) 총 \$400
 - ▶ 식비와 생활비 \$500 등

총 \$3900 + 항공료 별도